

투데이 칼럼

북한의 미사일 위협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시작과 끝은 단연 '미사일 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8번 발사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66발의 미사일을 쏘았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미사일 도발이다. 여기에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비롯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시험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한껏 끌어올렸다.

문제는 2023년 올해 이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왜 이렇게 미사일에 집착하는 걸까 관심이 모아진다. 1월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은 한 해 내내 다양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KN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계 최장 길이, 과물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불리는 화성-17형 등 다양하다. 급기야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 NLL 남쪽에 북한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

1984년 이후 지금까지 식별된 미사일과 핵실험 중 80%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기에 이루어졌다. 특히 2022년 미사일 활동은 역대 가장 활발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참사로



정복규
논설위원

끝난 뒤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를 활용해 미국을 압박한다는 장기 전략이란 분석이다.

그렇다면 올해 주목해야 할 북한 미사일은 무엇일까 촉각이 곤두선다. 무엇보다 지난 3월에 발사했다고 주장한 화성-17형 과물 ICBM이었다. 발사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월엔 화성-17형을 고도 6,100km까지 올려 최대 성능으로 발사했다. 정상 각도로 쏘면 워싱턴 등 동부는 물론 남부까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화성-17형의 대기권 재진입 성능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1월 발사가 최종 시험이었다며 성공을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도 경계해야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

도로 비행하며 요격 회피기동이 가능한 무기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전략무기라는 평가가. 북한이 생각하는 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이다. 이런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자신들이 초군사 강대국이다, 그런 이미지를 자주 심어주려는 것이다.

또 올 4월 준비 완료를 선언한 군사 정찰위성도 위협적이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재로선 군사 정찰위성으로 쓰기에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각종 미사일 개발을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30발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가운데 IRBM,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은 일본 영도를 넘어

갔다. 또 10월 당 창건 기념일엔 전술핵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공개하는 등 핵과 미사일 전략에 상당한 능력과 자신감을 가졌다는 분석이다.

북한에게 2023년은 무기체계 개발 57개년 계획 3년차다. 전술핵과 전략핵, 정찰위성 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전술 핵무기는 소형 경량 다중화, 전략핵은 기동성 강화에 집중할 거로 보인다.

특히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최근 실시한 대륙력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분출시험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가. 여기에 또 다른 전략무기로 꼽히는 북극성 계열의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개발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시기적절한 김정은, 김정일 위원장과 김일성 주석 생일이 있는 1월과 2월, 4월, 그리고 한미의 대규모 연합 군사연습이 예상되는 3~4월에 미사일 도발을 집중할 수 있다.

지난 2022년은 북미, 남북 대화 대신 북한의 역대 최대 미사일 도발로 긴장해야 했다. 하지만 2023년 역시 타협과 외교는 멀고 군사력 강화는 순수한 선택이 됐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EU 집행위원장과 기념 촬영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블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열린 유럽연합(EU)-우크라이나 정상 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EU 집행위원장, 데니스 슈미탈 총리와 함께 서명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L 타워서 뛰어내리는 BASE 점핑 선수들



지난 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쿠알라룸푸르(KL) 타워 국제 점프 대회가 열려 베이스(BASE) 점핑 선수들이 뛰어내리고 있다. BASE'는 건물(Buildings), 안테나(Antennas), 교량(Spans), 지구(Earth)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상의 높은 건물이나 절벽 등에서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매우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다.

사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8천호

지난해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8천 호를 넘어섰다. 정부가 위협선으로 언급했던 6만 2000호를 넘어섰다. 속도도 빠른데다 악성 불량인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여 호로 집계됐다.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이다. 수도권에서 1만 천여 호가 넘어 한 달 전보다 6.4% 늘었다.

지방은 5만 7천여 호로 19.8% 증가했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한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7천 5백여 호로 같은 기간 6%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주택 매매량은 50만 8천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9.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

권이 57.9%, 지방이 42.7% 감소했다.

특히 서울 주택 매매량이 5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55.8% 줄었다.

분양 실적도 1년 전보다 14.5% 줄었는데, 일반분양이 15.9%, 임대주택은 29.1% 각각 감소했고, 조합원 분양만 8.3% 증가했다. 전, 월세 거래량은 모두 283만 3천여 건으로 20.5% 증가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월세 거래량 비중은 43.5%로 1년 전보다 5.9%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만710호에 불과했던 미분양 물량이 1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미분양 증가를 경계하면서도,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시장에 위기가 온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소화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전북 공공기관 유치 경쟁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에, 다른 지역의 견제도 삼해지고 있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정 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다.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정하고 하반기에는 가능한 기관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르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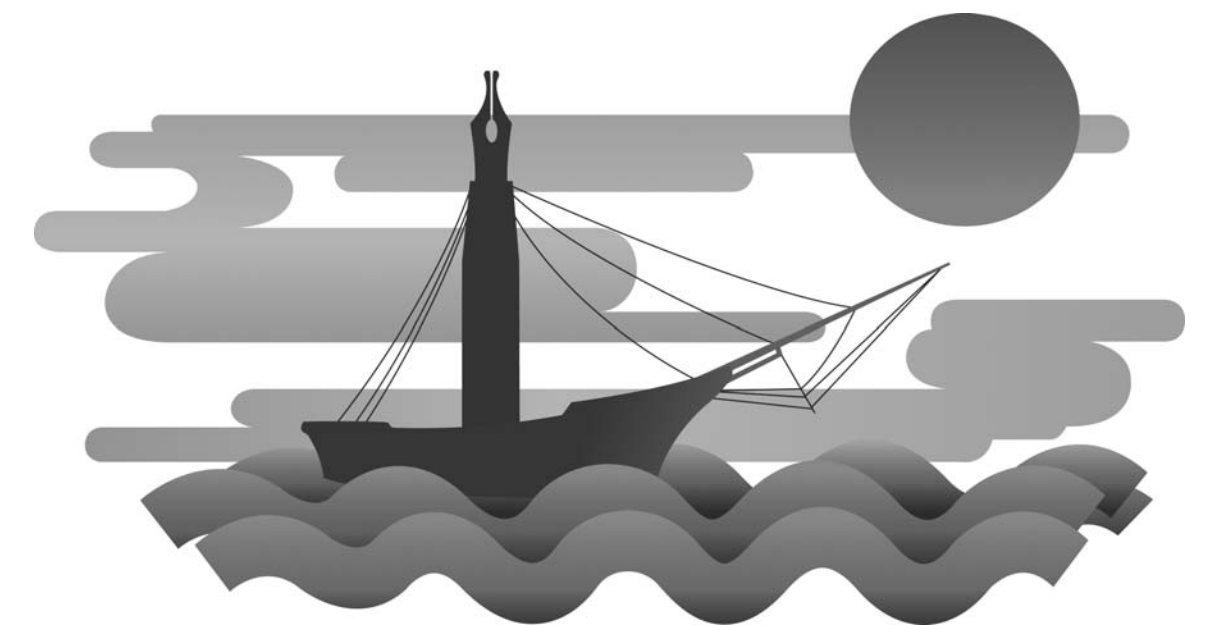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과 관련해, 완주군과 전남 나주시 등 혁신도시가 있는 전국 11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모였다. 이들은 기존 혁신도시 내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혁신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서 규정하도록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전 대상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된다면 정주여건 개선 등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 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기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익산시는 추가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했다. 도지사도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힘써 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른 시군들 역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여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상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